

신간소개 | Books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미의 대안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 박윤주 (역은이)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간일: 2013-06-28

ISBN(13): 9788946055612

296쪽 | 223*152mm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1권.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들을 현지 시각으로 읽으며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의 갈 길을 찾는 데 이정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부록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의 중요 사건과 라틴아메리카의 주요사건을 나란히 놓아 서로의 영향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연보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제1부는 이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논문을 모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긍정적인 가능성과 메르코수르 등 남미 지역 통합 노력, EU 등 국제 경제 블록과 접촉을 다룬 논문이 실려 있다. 제2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과 그 특징, 그린피스 사례를 통해 본 사이버 액티비즘을 통해 진화하는 사회운동, 민족주의적 페론주의 정서의 부활과 고질적인 후견주의 정치 문제를 다루었다. 제3부는 칠레의 좌파 정당인 콘세르타시온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시장근본주의 경제정책 추구로 일어난 교육, 연금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제4부는 2009년 대선에서 우루과이 사상 최초로 좌파정부가 집권하게 된 과정을 실었다.

제1부는 이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논문을 모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긍정적인 가능성과 메르코수르 등 남미 지역 통합 노력, EU 등 국제 경제 블록과 접촉을 다룬 논문이 실려 있다. 제2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과 그 특징, 그린피스 사례를 통해 본 사이버 액티비즘을 통해 진화하는 사회운동, 민족주의적 페론주의 정서의 부활과 고질적인 후견주의 정치 문제를 다루었다. 제3부는 칠레의 좌파 정당인 콘세르타시온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시장근본주의 경제정책 추구로 일어난 교육, 연금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제4부는 2009년 대선에서 우루과이 사상 최초로 좌파정부가 집권하게 된 과정을 실었다.



라티노/라티나- 혼성문화의 빛과 그림자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기획) | 김현균, 이은아 (역은이)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간일: 2013-06-28

ISBN(13): 9788946055629

288쪽 | 223*152mm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학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전달하고자 기획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그 두 번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소수인종집단이 된 라티노를 다루었다. 『누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의 라티노 특집기획을 중심으로 정치, 문화비평, 문학 논문, 개인 르포, 보고서, 발표문 등 다양한 글들을 모아 번역했다.

미국사회에서 라티노의 증가와 라티노 문화의 영향력 증대를 이른바 ‘미국적 정체성’에 대한 ‘내부의 적’으로 위협시하는 새뮤얼 헌팅턴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부터 세계화에 의해 확대된 대규모 이주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로부터 이주해온 라틴아메리카 이주자들의 삶에 대한 실증적이고 정밀한 고찰 속에서 그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또 어떻게 ‘범라티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또한 카리브 음악이 미국 아프리카계 음악과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나 미국에서 출간된 라티노 문학 작품 분석과 크로니카, 단편 소설 등 미국 사회 라티노/라티나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다양한 쟁점들에 관한 연구와 라티노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보여주는 글을 실었다.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아메리카의 국제노동이주와 초국가적 공동체

주종택(지은이)

출판사: 이담복스

출간일: 2013-09-01

ISBN(13): 9788926844083

340쪽 | 225*152mm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제노동이주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생활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내에 형성된 라티노 공동체의 특징 및 이들이 갖는 사회문화적·정치적 영향과 의미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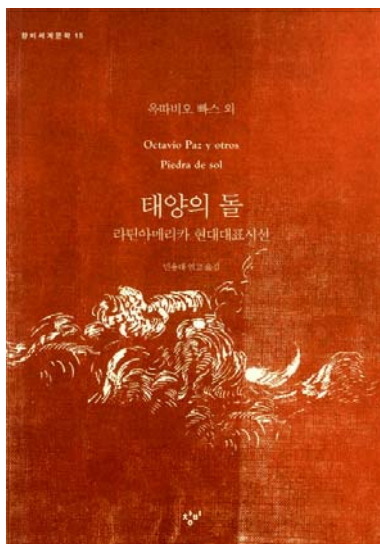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태양의 돌 (원제: Piedra de sol)

니카노르 파라, 세사르 바예호, 에르네스토 가르데날, 옥타비오 파스 등 (지은이) | 민용태 (옮긴이)

출판사: 창비

출간일: 2013-06-28

ISBN(13): 9788936464158

380쪽 | 210*143mm

시인이자 스페인 왕립한림원 종신위원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가 현대 라틴아메리카 대표 시인 24인의 주옥같은 시편을 두루 골랐으며, 번역자의 자세한 시인별 소개와 풍성한 각주는 라틴아메리카 현대시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래된 신세계- 다음 단계의 문명을 위하여

손 윌리엄 밀러 (지은이) | 조성훈 (옮긴이)

출판사: 너머박스

출간일: 2013-07-01

ISBN(13): 9788994606200

480쪽 | 223*152mm (A5신)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지은이는 아메리카 옛 문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멜빌상(Melville Prize)을 수상했으며 이 책은 오늘날까지 쌓여온 라

틴아메리카 환경사 연구의 종합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연결 지으며 새로운 지평을 펼쳐 보인다.

아스텍의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에서 먹을 것을 찾는 전략에서부터 오늘날 멕시코시티에서 숨 쉬기 위한 투쟁까지 거의 6세기에 걸친 역사로 지난날의 열대 농사법부터 오늘날의 환경 관광까지 폭넓게 살펴본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자연을 인간을 뺀 '나머지 자연'으로 볼 때, 인간의 범위를 좁게 잡고 무한한 발전을 뒤쫓는 이들에게는 당신 또한 사라져도 상관없는 '자연'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식민주의의 유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수탈당하고 고통 받았다는 것 역시 좁은 관점에 불과하며, 선주민이 크리오요와 메스티소의 독립운동에 맞서 오히려 스페인 왕조를 지지 지원했던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들 신생 공화국이 세워진 뒤 선주민을 포함한 자연은 더욱 수탈되었으며 화석연료가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옥수수 문명을 따라서

정혜주 (지은이)

출판사: 이담북스

출간일: 2013-06-30

ISBN(13): 9788926843925

232쪽 | 223*152mm

메소아메리카의 사람들은 동물을 사냥하고 나무열매를 채집하기 위해 이동하며 살다가 땅을 갈아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정착하였다. 그리하여 마야문명을 비롯하여 올메카, 테오티우아칸, 사포테카, 아스테카 등의 고대문명이 시작되었다.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은 옥수수를 비롯하여 호박, 가지, 고추, 스쿼시 등의 많은 야생식물들을 재배작물로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옥수수는 가장 중요한 식량이었으며 옥수수의 생산과 소비 과정이 바로 그들의 종교이며 문화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옥수수와 삶 전체와의 밀접한 관계는 메소아메리카 문명 지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문명이 일어났던 전기 고전기시기의 올메카와 테오티우아칸 문명부터 사포테카, 우아스테카, 그리고 마야문명이 스러지는 후기 고전기시기까지 그 흔적이 여러 유적과 유물에 남아있고, 마지막까지 남은 아스테카와 믹스테카 문명에서도 여러 고문서에 옥수수와 관계된 의례와 그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은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에 사는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의 식생활과 문화의 기초가 되는 옥수수의 자취를 따라가 보며 그들의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이해해 보고자 시도하였다.